

실어증에서 나타나는 참조어 정보처리과정의 특성: 명칭 실어증과 이해성 실어증을 중심으로

김가영*, 황유미**, 문영선***, 박윤****, 남기춘*****

*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재활의학과 언어치료교실

** 고려대학교 언어과학과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Anaphoric Resolution in Anomia and Wernike Aphasia

Ga-Young Kim*, Yumi Hwang**, Youngsun Moon***, Yoon Park****, Kichun Na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실어증 화자가 참조어(대명사)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오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참조어에 관한 처리기제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명칭성 실어증 환자와 이해성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각의 환자에게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1은 정오판정 과제로 문장, 혹은 문단을 제시하고 사용된 참조어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험 2는 채워넣기 과제로 문장, 문단을 제시하고 괄호 안에 들어갈 참조어를 보기에서 고르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된 참조어는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 그리고 지시 관형사였다. 인칭 대명사의 경우는 인칭과 수로 나누어 각각 1인칭, 2인칭의 단수 복수로 구분하여 제시되었으며, 문장 내에서 각각 주격조사 '가', 보조사 '는', 소유격조사 '의'와 결합되어 제시되었다. (나는, 너는, 우리는, 너희는/ 내가, 너가, 우리가, 너희가/ 나의, 너의, 우리의, 너희의) 지시 대명사의 경우는 사물을 나타내는 것과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이것, 그것, 저것/ 이곳, 그곳, 저곳) 지시 관형사의 경우는 '이', '그', '저'가 각각 명사와 결합되어 제시되었는데 지시 대명사로 분류하였다. 실험결과는 실험과제간(정오판정, 채워넣기), 실험재료간(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의 차이로 분석될 수 있다. 또한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 내에서도 각각의 재료들 간에 오류반응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참조어 범주간 별개의 처리과정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가 사용되는 문맥적 상황, 대명사의 개념적 거리, 빈도, 사용된 문장의 길이 등 여타의 요소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대명사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명사가 쓰여질 자리에 그 명사를 대신하여 쓰이는 품사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기술된 바 있다. 이에 덧붙여 이익섭/임홍빈(1983)에서는 대명사에 상황 지시적(deixis) 속성을 큰 특징으로 부여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어증 환자들이 대명사의 지시적인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칭 대명사에서 지시적인 속성이란 1인칭 대명사 '나'와 2인칭 대명사 '너'의 상황 지시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나'는 언제나 그 담화 상황에서 화자를 지시하는 말이고, '너'라는 것은 언제나 그 담화 상황에서 청자를 지시하는 말이라고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전형적인 담화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대립적인 역할의 구분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나'와 '너'는 구체적인 지시 대상을 가리키게 되고, 이러한 특성을 대명사가 갖는 역할 지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김미형, 1995). 만일 피험자가 문장의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나 적절한 인칭 대명사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대명사의 지시적 속성을 처리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칭 대명사의 3인칭에 관해서는 1, 2인칭과 다른 속성이 있는 것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다. 1, 2인칭 대명사처럼 담화상에서 화청자를 제외한 제3의 인물을 가리키는 역할 지시성이라는 상황 지시성 이외에도 위치를 가리키는 상황 지시성과 대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지시 대명사와 관련된 논의는 실로 다양한데 고영근(1987)에 따르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3인칭 대명사이고 사물을 가리키는 것은 지시대명사라고 하였다. 또한 지시대명사는 상황 지시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대응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3인칭 대명사와 지시대명사에 관한 논의는 종래의 영어 문법에서 일반적으로 "he, she, it"은 3인칭 대명사로, "this, that"은 지시대명사로 기술하고 있으나 국어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인칭 대명사에 관한 부분은 실험 재료에서 제외되었다. 현대 국어의 입장에서도 1인칭과 2인칭 대명사를 한 부류로 지시대명사를 3인칭의 한 부류로 보든 아니든 둘 사이에는 구분되는 속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1인칭과 2인칭, 지시대명사의 처리에 있어 차이점이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

는 작업일 것이다.

현대 언어학(국어학)에서 각 대명사간의 차이점을 조명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언어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대명사를 찾아내는 지, 그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대명사는 대용어(anaphora)의 하나로 담화 상황에서 한번 언급된 명사를 지칭한다. 대명사를 찾는 방법으로 Rayner & Pollatsek(1989)에서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문법적 규칙-수, 성, 문장의 병렬적 형태-을 적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함축적인 인과성(implicit causality)을 이용하는 것으로 문장의 내용에 따라 대명사의 선행사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대명사와 선행사의 거리에 따라 찾는 것이다. 대명사와 선행사의 거리에 관해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연구가 있다.(Clark & Sengul, 1979)

한편, 대용어를 찾는 것은 선행 담화에서 선행사(antecedent)를 찾는 과정으로 하향식 처리과정(top-down processing)과 상향식 처리과정(bottom-up processing)의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하였다(Sanford, 1989). 하향식 처리과정이란 대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그 맥락에서 다시금 언급된다는 예견(expectation)에 기반한 처리과정으로 통사 규칙을 이용하는 방법, 평행 구조 책략을 사용하는 방법, 담화 내에서 사용된 어휘 자질로부터 예견되는 것을 찾는 방법이 있다. 상향식 처리과정이란 관련된 예견없이 대용어가 일단 발견되면 찾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대용어가 가진 선행사와의 의미 자질과 음성적 관련성이 선행사를 찾는 실마리가 된다. 따라서 담화 상황의 기억 표상에서 가능한 선행사들 가운데 위의 속성에 기반해서 선행사를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명칭성 실어증 환자로 이해성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실험 1

실험 1은 정오판단 과제로서 피험자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피험자가 제시된 자극을 읽고 정오를 판단함으로써 피험자의 인칭 대명사와 지시대명사에 관한 이해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피험자가 실험문항을 읽고 괄호속에 제시된 대명사가 올바른지 그른지를 판별하는 과제로 피

험자가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피험자

명칭성 실어증 환자(S.D.K씨)와 이해성 실어증 환자(J.Y.S씨)

환자 S.D.K씨는 57세의 남자로 오른손잡이이고 서울말씨를 사용하며 대졸 학력의 전직 회사원이다. 본 환자는 1995년부터 당뇨병으로 투약 중이며, 1998년 8월 1일 갑자기 발생한 우측 편마비와 실어증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발병 당시 촬영한 뇌자기공명영상(MRI)에서 중심 반란원(centrum semiovale), 뇌실 주위 백질(periventricular white matter), 미핵두부(caudate nucleus head), 내포의 전방(anterior limb of internal capsule), 기저핵(basal ganglia), 도(insula), 측두엽 전방(anterior tip of the temporal lobe)에 광범위한 급성 뇌경색과 함께 출혈성 전이(hemorrhagic transformation)가 함께 발생한 소견을 보였다. 자기공명 뇌동맥 조영술에서는 좌측 경동맥, 전뇌동맥과 중뇌동맥의 분절에서 혈관이 좁아진 사실이 관찰되었다.

급성기 약물치료로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1998년 8월 12일 고대병원 재활의학과 언어치료실에서 한국어판 Western Aphasia Battery(K-WAB)를 사용하여 1차 언어평가를 시행하였다.

이 검사에서 스스로 말하기(spontaneous speech) 점수는 15/20점으로, 긴 문장 표현이 가능하지만 낱말찾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그거', '저기' 등의 대명사 표현이 빈번하였다. 알아듣기(auditory comprehension) 점수는 6/10점으로 정보적인 내용의 질문과 문법적 이해를 요하는 지시에서 오류를 보였다. 따라말하기(repetition) 점수는 9/10점으로 양호한 상태였으며, 이름대기(naming) 점수는 0/10점으로 물건 이름대기(confrontation naming), 어휘풍부성(generative naming), 문장완성, 문장응답의 모든 항목에서 정반응하지 못했다. 읽기와 쓰기에서는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스스로 쓰기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 검사 결과 환자는 경피질성 감각실어증(transcortical sensory aphasia)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1998년 9월 1일 시행한 추적검사에서는

알아듣기 점수는 8/10점, 이름대기 능력은 4.1/10점으로 지난 검사에 비해 호전되었으며, 검사결과 anomic aphasia로 유형이 바뀌었다.

발병 후 8개월이 지난 1999년 3월 8일 다시 시행한 3차 언어평가에서는 스스로 말하기 능력은 18/20점으로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낱말찾기의 어려움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알아듣기 능력은 9.45/10점으로 양호하였고, 따라말하기는 10/10점으로 모든 항목에서 정반응하였다. 이름대기 능력은 7.6/10점으로 호전되었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 저하된 능력을 보였다. 읽고 이해하는 능력 양호하였으며, 쓰기에서는 받아쓰기는 양호하나 스스로 쓰기에서는 조사와 어미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었다. 검사 결과 경도의 anomic aphasia로 진단되었다.

그 후 1999년 6월 16일에는 보스턴 실어증 진단 검사(Boston Diagnostic Aphasia Evaluation; BDAE)를 사용하여 4차 언어평가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특별히 큰 호전을 보인 부분은 없었으며, 표현하려는 생각 또는 표현의 형태에는 심각한 제한이 없으나 말의 유창성 및 이해능력에 결함이 있다는 기술로 요약되었다. 실어증 유형은 명칭성 실어증(anomic aphasia)로 이전의 검사와 동일하였다.

환자 J.Y.S씨는 55세의 남자로 대졸 학력을 지녔으며, 오른손잡이였고 발병당시 직업은 초등학교 교장이었다. 1998년 9월 27일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와 언어장애를 주증상으로 한 뇌졸중으로 경희대학교 한방재활과에 입원하여 치료하였다. 발병당시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MRI)에서는 T1WT 및 T2WT 영상에서 모두 좌측 대뇌반구 중 중뇌동맥의 하부 분지에 의해 혈류공급을 받는 대뇌피질 영역에 고신호강도(high signal intensity)를 보여 급성 뇌경색의 소견을 보였다. 뇌경색으로 인해 손상이 나타난 부위는 좌측 외측 뇌실(lateral ventricle)의 후각부(posterior horn)에서 후방부 측두엽 피질까지 주로 경색이 나타났으며, 두정엽의 후하방과 측두엽의 후상방에 해당하는 각회전(angular gyrus) 주변까지 침범하는 소견을 보였다. 함께 시행한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MR angiogram)에서는 좌측 중뇌동맥이 좁아진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우측 상하지에 운동능력의 소실은 보이지 않았고 이학적 진찰 소견에서도 특이할 만한 운동 및 감각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환자는 급성기 치료 후 1998년 10월 9일 처음으로 언어평가를 시행하였다. 환자의 청력에 특이할 만한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청각적 이해력 과제에서는 두 단어 정도의 명사 detection task도 실패하였다. 환자는 간헐적 자연발화는 남아있는 상태였으나 심한 신조어 착어를 나타내었고 다른 언어검사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시인지 동작치료(Visual action therapy)를 시작하였다.

1998년 11월 15일에는 1차 보스턴 실어증 진단검사(The Boston Diagnostic Aphasia Examination, BDAE)를 실시하였다. 운율선 5/7, 발화의 길이 4/7, 조음의 민첩성 5/7로 유창성 지표의 득점은 높으나 따라말하기에서 첨가어나 착어가 많이 보였으며, 이름대기에서는 모든 하위 항목이 20% 미만의 득점을 보였다.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많이 저하되어 있었고 청각적 이해력의 모든 하위 항목에서 30% 미만의 득점을 보여 전형적인 이해성 실어증(Wernicke's aphasia)을 나타내었다. 1999년 4월 6일 시행한 어휘판별검사(discrimination test)에서는 같은 발음 20개중 8개에서 가능하였고, 다른 발음에서는 4개만 가능하였다. 이후 1999년 7월 7일 추적 시행한 보스턴 실어증 진단검사에서는 운율선 6/7, 발화의 길이 6/7, 조음의 민첩성 6/7로 유창성 지표의 득점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말하기에서는 첨가어나 착어가 많이 감소하여 고빈도의 반복은 6/8의 점수를 보였다. 쓰기와 읽기 영역은 기초단계 정도에서 가능하여 문장단위의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였다. 이름대기에서는 모든 하위항목이 60% 이상의 득점을 보였으며 청각적 이해력의 모든 하위 항목에서 65% 이상의 득점을 보여 많은 향상을 보였으나, 유창성에 비해 청각적 이해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이해성 실어증의 양상을 보였다.

실험 재료 및 설계

자극은 41문항으로서 인칭 대명사 관련 16문항과 지시 대명사 관련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칭 대명사 관련 문항은 1인칭과 2인칭 단수 복수로 제한되어 제시되었는데 사용된 실험 문항의 예는 아래와 같다.

예문 1>

철수: 나는 노래 부르는 것을 싫어해.
영수: 그래서 (너는) 노래방에 가지 않는구나.

지시 대명사 관련 문항은 25문항으로 이-, 그-, 저- 에 관해 판별하도록 제시되었는데 이-, 그-, 저- 가 각각 사물(이것, 그것, 저것)과 장소(이곳, 그곳, 저곳/ 여기, 거기, 저기) 또는 지시 관형사로 명사와 결합(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하여 제시되었다. 사용된 실험 문항의 예는 아래와 같다.

예문 2>

영희와 철수는 별을 보고 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토끼가 살고 있다"

예문 1에 대해서 피험자는 대명사가 적절히 쓰였다고 대답을 해야하고 예문 2에 대해서는 잘못 쓰였다고 대답해야 한다. 예문 2와 같이 틀린 답이 들어있는 문항이 제시되었을 경우 적절한 지시 대명사가 무엇인지 물어보지는 않았다. 각각의 인칭 대명사 관련 문항과 지시 대명사 관련 문항은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의 실험 문항의 자세한 내용 구성은 아래와 같다.

인칭대명사 종류	문항수
1인칭 단수 (나)	4문항
2인칭 단수 (너)	4문항
1인칭 복수 (우리)	4문항
2인칭 복수 (너희)	4문항

지시 대명사 종류	문항수
사물 (이것/그것/저것)	12문항
장소 (이곳/그곳/저곳, 여기/거기/저기)	9문항
지시 관형사 + 명사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4문항

실험 절차

각 실험 문항은 A4 용지 한 장에 각각 가로로 글꼴은 신명조, 장평 90, 자간 0, 크기 36으로 제시되었다. 자극은 시각적으로 제시되었고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실험 문항을 읽어보게 한 뒤 괄호 속에 제시된 대명사의 정오를 판단하게 했다. 각 실험은 환자 1명이 문장을 읽고 판단하는 동안 실

험자 2명중 한 명은 환자의 실험 진행 과정을 기술했으며 한 명은 환자가 선택한 정오 판정을 답지에 기재하였다. 실험은 보통 1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는데 환자가 한 번에 41문항을 모두 소화할 수 없어서 2번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각 문제 당 걸리는 시간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하게 늦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반응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환자가 한 문제의 정오를 판정하고 나서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

실험 결과 및 토의

명칭성 실어증 환자(S.D.K씨)의 사례를 보면 총 41문항 가운데 23문항을 맞추어 56%의 정답률을 보였다. 인칭 대명사의 경우는 16문항 중에서 10문항을 맞추어 62%, 지시 대명사의 경우는 25문항 가운데 13문제를 맞추어 52%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해성 실어증 환자(J.Y.S씨)의 경우는 명칭성 실어증 환자와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총 41문항 가운데 28문제를 맞추어 정답률 68%로 명칭성 실어증 환자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인칭 대명사의 경우 16문항 가운데 9문항을, 지시 대명사 25문항 가운데 19문항을 각각 맞추어 56%의 인칭 대명사 정답률과 76%의 지시대명사 정답률을 보였다.

	명칭성 실어증 환자(S.D.K)	이해성 실어증 환자(J.Y.S)
인칭대명사 (정답률)	62% (10/16)	56% (9/16)
지시대명사 (정답률)	52% (13/25)	76% (19/25)
인칭+지시 (정답률)	56% (23/41)	68% (28/41)

명칭성 실어증 환자는 전반적으로 인칭대명사보다 지시 대명사를 더 못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해성 실어증 환자는 지시 대명사를 인칭대명사보다 더 못하였다. 또한 명칭성 실어증 환자는 지시대명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오류반응을 나타냈는데 반해 이해성 실어증 환자는 특히 장소와 관련해서 '거기(그곳)'에 관련된 문항을 잘 못하였다. 위의 결과로 보아 명칭성 실어증 환자와 이해성 실어증 환자 사이에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 처리에 있어 이중해리(double dissociation) 현상을 보이

는 것 같다.

실험 2

실험 2는 채워넣기 과제로 피험자의 발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험 문항이 제시되고 괄호 속에 들어갈 적절한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를 고르도록 하였다. 발화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관식으로 직접 채워 넣도록 하는 것이지만 실험하고자 하는 대명사로 제한하기 위해서 보기를 주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도록 하였다. 인칭 대명사는 1인칭 단수(나)와 복수(우리), 2인칭 단수(너)와 복수(너희)의 네 가지 보기가 주어졌고, 지시 대명사는 장소, 사물에 따라 이-,그-,저-의 세 가지 보기가 제시되었다. 실험 1이 단순한 정오판정을 하는 과제라면 실험 2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피험자의 이해수준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과제이다.

방법

피험자

명칭성 실어증 환자(S.D.K씨)와 이해성 실어증 환자(J.Y.S씨)

실험 재료 및 설계

실험 2는 채워넣기 과제로 피험자의 표현의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자극은 48문항으로서 인칭대명사는 4지선다로 지시대명사는 3지 선다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피험자의 발화정도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직접 발화를 시켜보아 기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 수 있으나 실험의 용이성과 발화내용의 판별 기준의 모호함으로 객관식으로 보기를 주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도록 하였다. 인칭대명사와 관련된 문항은 20문항이고 지시대명사와 관련된 문항은 24문항으로 실험 1과 비교하여 두 대명사간의 비례를 맞추었다. 제시된 실험 문항은 아래와 같다.

예문 3>

철수: 너는 어떤 종류의 음악을 가장 좋아하니?

영수: () 팝송을 가장 좋아해.

- ① 나는 ②너는 ③우리는 ④너희는

예문 4>

미국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에는 디즈니 랜드가 있습니다.

- ① 여기 ② 거기 ③ 저기

위의 제시된 예문과 같은 실험 문항에서 피험자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하나 선택하도록 하였고, 실험 1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대명사는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의 자세한 문항수는 아래와 같다.

인칭대명사 종류	문항수
1인칭 단수 (나)	5문항
2인칭 단수 (너)	5문항
1인칭 복수 (우리)	5문항
2인칭 복수 (너희)	5문항

지시 대명사 종류	문항수
사물 (이것/그것/저것)	13문항
장소 (이곳/그곳/저곳, 여기/거기/저기)	9문항
지시 관형사 + 명사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2문항

실험 절차 -

실험 1과 동일한 형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및 토의

명칭성 실어증 환자의 사례를 보면 총 48문항 가운데 25문항을 맞추어 52%의 정답률을 보였다. 인칭 대명사의 경우는 20문항 중에서 15문항을 맞추어 75%, 지시 대명사의 경우는 24문항 가운데 10문항을 맞추어 41%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해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는 총 48문항 가운데 역시 25문항을 맞추어 54%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인칭 대명사는 20문항 중 10문항을 맞추어 50%의 정답률을, 지시 대명사는 24문항 가운데 16문항을 맞추어 66%의 정답률을 보였다.

	명칭성 실어증 환자(S.D.K)	이해성 실어증 환자(J.Y.S)
인칭 대명사 (정답률)	75% (15/20)	50% (10/20)
지시 대명사 (정답률)	41% (10/24)	66% (16/24)
인칭 + 지시 (정답률)	52% (25/48)	54% (26/48)

명칭성 실어증 환자는 실험 1과 유사하게 실험 2에서도 인칭 대명사보다 지시 대명사를 더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해성 실어증 환자 역시 실험 1과 유사하게 지시 대명사보다 인칭 대명사를 더 못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서 명칭성 실어증 환자와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인칭 대명사와 관련해서 명칭성 실어증 환자의 오답 내용을 살펴보면 인칭 대명사의 경우 2인칭을 1인칭으로 답하는 오류(너희는->나는, 네가->내가, 너는->나는)와 인칭은 근접했으나 단수 복수의 수 개념을 혼동하는 오류(우리는->나는, 너희는->너는)를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에 이해성 실어증 환자의 인칭 대명사 관련 오답 내용은 인칭 전반에 관한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일정하지 않은 오답 패턴을 보였다.

지시 대명사와 관련해서 명칭성 실어증 환자는 이-, 그-, 저-를 혼동하여 사용한 반면에 이해성 실어증 환자는 가까운 것을 직접 지시하는 '이것'과 먼 것을 지시하는 '저것'은 잘 한 반면 '그것'을 잘 못하였고 특히 장소에 관한 문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전체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명칭성 실어증 환자와 이해성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참조어의 처리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험은 인칭 대명사 1, 2인칭과 지시 대명사에 국한하여 이해와 산출의 측면에서 정오판정 과제와 채워넣기 과제로 실시되었다.

두 과제를 실시한 결과 명칭성 실어증 환자와 이해성 실어증 환자 사이에는 뚜렷한 경향성의 차이를 찾을 수 있었다. 명칭성 실어증 환자는 인칭 대명사를 지시 대명사보다 더 잘 수행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해성 실어증 환자는 지시 대명사를 인

칭 대명사보다 더 잘하는 반대의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과제 별로 분석해 보면 실험 1의 정오판정 과제를 실험 2의 채워넣기 과제보다 더 잘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환자간의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은 이 환자들의 병세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명칭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사물을 지칭하는 것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사물을 다시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의 처리가 인칭 대명사의 경우보다 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명칭성 실어증 환자가 사람의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는 잘 수행하는데 반해서 사물을 명명하는 것은 잘 못하므로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를 지시대명사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이해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는 인칭 대명사에 대한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담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인칭 대명사를 고르는 것을 어려워했다. 명칭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는 인칭 대명사에 관해서 보이는 오답이 일정한데 반해서 이해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는 불규칙한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지시대명사의 경우 명칭성 실어증 환자는 '이-', '그-', '저-'를 혼용하여 선택하였고 특히 '그-'에 대한 오답이 높았는데 '그-'에 관해서 이해성 실어증 환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이-', '저-'와는 구분되는 '그-'가 보이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지시성과 담화상에서 언급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화자와 청자가 방안에서 대화하면서 방안의 사물을 지시할 때 화자가 가까이 있는 것은 '이것', 청자 가까이 있는 것은 '그것', 화청자에게서 조금 먼 것은 '저것'으로 지칭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경우는 순순 담화상황 내에서 한번 언급된 것을 다시 지칭할 때도 사용된다. 주어진 실험 문항 내에서 '이-'와 '저-'에 대해서는 가까운 거리를 가리키는 문맥이 주어졌을 때는 '이-'를 사용하고 조금 먼 거리를 가리키는 문맥이 주어졌을 때는 '저-'를 사용하는 책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유로 직접적으로 가리킬 수 없는 거리의 개념을 지칭하는 '그-'에 대해서는 더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 2인칭 대명사와 지시대명사의 구분에 따른 수행에 있어서 두 환자간의 차이는 분

명하게 드러나고 이로 미루어 보아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 사이에 처리기제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일반인과 비교하여 명칭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는 지시 대명사를 수행하는 처리 기제에 전반적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해성 환자의 경우는 인칭 대명사의 수행을 처리하는 기제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해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는 지시 대명사에 대해서 특히 '그-'에 관한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시 대명사 내에서도 직접 사물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지시 대명사와 추상적으로 담화 상황내에서 한번 언급된 명사를 다시 받는 지시 대명사 간에 처리기제가 다른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문헌

- 김미형(1995) 한국어 대명사, 한신문화사.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Dopkins, S and Nordlie, J(1995). Processes of anaphor resolution, In Lorch, R.F. and O'brien, E.J. (Ed), *Source of coherence in reading*, Lawrence erlbaum associaties, Hillsdale, New Jersey.
Garrod, S and Sanford, A(1990). Referential processes in reading: focusing on roles and individuals, In Balota, D.A., Flores d'Arcais, G.B., and Rayner, K(Ed), *Comprehention processes in reading*, Lawrence erlbaum associaties, Hillsdale, New Jersey.
Goodglass, H and Wingfield, A(1997). *Anomia*, Academic press.
Nickels, L(1997). *Spoken word production and its breakdown in aphasia*, Psychology press.
Rayner, K and Pollatsek, A (1989). *The psychology of reading (pp. 268-278)*, Prentice hall, New Jersey.